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수술을 시행하는 소위 선수술 교정 치료 (기능적 악교정 수술; Functional Orthognathic Surgery, FOS)의 경우에는, 기존의 수술전 교정치료를 시행하고 악교정 수술을 시행한 경우보다, 더욱더 수술 방법의 차이에 따른 수술 후 초기 교정치료 시 서로 다른 처치가 필수적이다. 이에 악교정 수술시 SSRO와 IVRO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고, 선수술 교정치료 시 하악골 수술 방법에 따른 수술 후 교정치료에 대해 증례와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OP-16 구연

Consideration of Ormco brackets in lingual orthodontics (설측교정에서 Ormco bracket의 특성에 대한 고찰)

고범연 | 한국레벨앵커리지교정연구회

계속적으로 새로운 세대의 설측교정장치가 개발되고 있으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설측교정의 종류는 두 가지 브라켓의 사용으로 양분되어 있다. Horizontal slot 외에 추가로 occlusal slot을 가진 Fujita bracket과 horizontal slot 만을 가진 Ormco bracket은 테크닉의 구사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굳이 어떤 것이 낫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자신이 익숙한 장치를 쓰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겠다. 나는 Ormco bracket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늘 단일 wire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지만, Fujita 선생님의 여러 가지 개념은 다른 장치를 사용한다 해도 분명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역시 한 가지 slot으로 치료를 마무리하는 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으나, 그만큼 간결한 wire 작업은 일상의 진료실 운영을 심플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 특히 진료의 시스템화를 위해 교정 staff들과의 co-work을 중시하는 진료실 패턴이라면 무엇보다 통일된 사고와 일관성 있는 procedure가 중요하다 하겠다. Ormco bracket은 특징적으로 상악전치부에 bite plane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기 레벨링 시 하악 전치의 교합간섭으로 인하여 구치부가 일시적으로 이개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대단한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지만 한편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현상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치부 교합거상 등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임상에서 일시적 구치부의 교합이개에 따른 환자의 불편감은 무시하고 있음은 아이러니컬하다. 또한, 교정치료에서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악 전치 retraction 시의 torque control 또한 Fujita bracket과는 다른 기술적 고려가 요구되고 있다. Wire의 선택과 Spee curve의 이용에 대하여 보다 실전적인 예를 보며 생각해보고자 한다. 결국 어떤 장치를 쓰느냐가 아닌 각 장치의 특성의 이해와 구사능력에 따라 치료결과의 우열이 가려진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치료하되 다른 장치의 특성을 토의해보는 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